

강화군 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의 현황과 과제

김용관*

1. 강화군 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현황

1.1. 강화군 농업대학(원) 설립과 운영체계

〈표 1〉 강화군 농업대학(원) 개요

구 분	농업대학	농업대학원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항 ○ 강화군조례제정(1999.11.20) 강화군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조례1613호)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1999. 3. 5 ○ 과정: 2개과(포도·오이) ○ 인원: 입학 70명 졸업 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2006. 3. 2 ○ 과정: 2개과(관광·벤처농업) ○ 인원: 입학 40명
경과 (학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제1회(99년)–8회(06년) ○ 과정: 2(99년)→3(04년)→4개과(07) ○ 인원: 589명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제1회(06)–2회(07) ○ 과정: 2개과 ○ 인원: 39명 졸업
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장: 군수(부학장 소장) ○ 교수부: 강화군 연구지도직공무원 15명, 외래강사 30명 ○ 교학처: 사회지도과 인력육성팀(2명) 	
운영개요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07.3.2–12.13 (연간40주 174시간) ○ 과정: 4개과 120명 식량작물과 40, 원예과 40, 완조공예과 20, 축산과 20 ○ 수업일자: 매주 목요일 13: 00–17: 00(4시간) ○ 졸업자격: 수업일수의 75% 이상 이수자 ○ 예산: 100,000천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07.3.2–12.13 (연간40주 174시간) ○ 과정: 2개과 40명 관광농업과 20, 벤처농업과 20 ○ 수업일자: 매주 금요일 13: 00–17: 00(4시간) ○ 졸업자격: 수업일수의 80% 이상 이수자 ○ 예산: 60,000천 원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지도사. e-mail: yok7845@hanmail.net.

1.2. 교과편성내역

1.2.1. 농업대학

- 필수기초: 재배학 등 54시간(30%)
- 전공공통: 마케팅 등 87시간(50%)
- 필수교양: 전통문화 등 8시간(05%)
- 자율활동: 분임토의 등 25시간(15%)
- 특별활동: 해외연수 등 4박5일

1.2.2. 농업대학원

- 필수교양: 지도자론 등 20시간(14%)
- 전공필수: 관광농업 등 44시간(32%)
- 전공공통: 유기농업 등 64시간(46%)
- 자율활동: 분임토의 등 10시간(07%)
- 특별활동: 해외연수 등 6박8일

1.3. 특별활동 주요내용

1.3.1. 선후배동문체육행사(동문회결성운영 2004년)

- 일자: 매년 6월 15일 전후
- 장소: 강화군농업대학 광장
- 인원: 640명(2006년, 졸업생 및 재학생)
- 내용: 졸업기수 대항 체육경기 및 레크레이션

1.3.2. 선진현장교육

- 일자: 대학(연간2회) → 7월 · 11월 ※ 대학원 연간 4회실시

- 장소: 국내
- 인원: 농업대학 100명, 대학원 40명
- 내용: 첨단연구시설 및 선진현장 견학

1.3.3. 해외연수

- 일 자: 11월
- 대상국: 농업대학 일본 40명
대학원 뉴질랜드 20명
- 내 용: 우수학생 관광농업 및 친환경 농업현장 연수교육

2. 문제점과 그 해결과정

2.1. 현실에 부합하는 능력있는 강사섭외

외래강사를 다수 초청하여 교육을 하다보니, 학생들이 강사의 수준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시각이 형성되어 경우에 따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강사가 초빙되었을 때 저런 강사를 왜 데려왔는냐는 불만 토로하기도 하였다. 반면, 저명한 인사는 강사로 절충과정에서 농업대학 출강 회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실력있는 인사를 초빙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농림부에 문의하거나, 서울대·인천대·안양대 등 관련분야 교수 및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은 민간기업 총무에게 문의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능력있는 강사섭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2. 학사운영업무 과중

학교의 학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 담당자 1인의 고유 역할 외에 농업대학에 대학원 운영업무까지 추가되다 보니 업무부담이 과중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2차 추경 이후부터는 일시사역인부를 2명 확보하여 함께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2.3. 농업대학 신입생 선발시 선발기준에 대한 논란

과거 2002년 이전까지는 지원자수가 모집정원과 거의 비슷하여 신입생 선발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신입생 선발부터는 모집정원의 2-3배가 지원하기에 이르러, 연령이 적고, 농지보유면적이 많은 자 우선으로 선발하다보니 탈락자의 일부 반발이 있었다. 그리하여 2006년도 농업대학원 신입생 선발부터는 과감히 논술형 필기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연령과 농지보유정도는 40%, 필기시험 반영비율을 60%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농업대학은 2007년부터 필기시험 반영예정).

2.4. 점증하는 주민들의 교육수요(지속가능한 교육 요청자 점증)

1년 과정으로 졸업하게 되는 농업대학 졸업생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과정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별도 과정 추가는 예산과 인력수반으로 쉽지 않은 과제였으나 농업대학 과정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사례를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하여 마침내 농업대학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 국비예산 3,000만 원을 시달해주었다. 그 결과, 농업대학에 이어 2개 과정(관광농업과, 벤처농업과)의 농업대학원이 발족(2006년 1월)하게 되었다(농업대학원은 벤처농업과 20명, 관광

농업과 20명, 총 40명이며 매주 금요일 13:00~17:00, 연간 40주로 운영하고 있음).

3. 자율적 혁신활동 및 특이사항

3.1. 강화군의 변화상과 미래의 발전방향 등 문집 발간(농업대학)

농업대학생들이 수업을 받아가면서 느낀 점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고, 개인의 숨은 숨씨 발굴, 강화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미래지향적 변화상과 방안 등을 모아 문집을 발간, 배포하여 강화군농업대학생들의 활동상과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3.2. 지역농업 부가가치 증대 방안에 대한 논문발표대회(농업대학원)

농업대학원 수업과정에 논문발표 시간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이수한 수업내용과 개인적인 정보수집 및 학습활동, 가지고 있는 비전 등을 종합, 지역농업 부가가치 증대방안을 작성,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상호토론과 함께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민주적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교육생의 모습을 구현하였다.

3.3. 자신감을 갖기 위한 유기농 및 축산 기능사 자격증 취득

향후 우리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의식공유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농업대학원 수업과정에 유기농 기능사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2006년도 32명이 응시, 22명이 합격하는 영광을

맞보기도 하였다. 또한 금년에는 농업대학 축산과 20명이 축산 기능사 자격취득에 도전할 예정이다.

3.4. 홈페이지 개설운영으로 상호 정보교환 및 활발한 토론의 장 마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 자체적으로 유기농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한 자료와 정보교환, 국내외의 관광농업사례와 벤처농업 현황 등 자료 게재, 그리고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토론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 운영성과

4.1. 외형적 변화

4.1.1. 전국적으로 확고한 강화군농업대학 위상정립

전국 최초 설립(1999년), 최선의 지역농업인교육 우수프로그램(성공 사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군의 운영사례를 본받아 비슷한 농업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수가 전국적으로 약 30곳 정도에 이르고 있다.

또한 농림부장관 특강(2006. 4. 27), 농촌진흥청장 졸업식 행사참여(2006. 12. 14), 농림부차관 특강(2007. 4. 24) 등 강화군의 우수사례에 대한 격려 및 향후 확대지원 의사가 이어져 관계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었다.

4.1.2. 눈에 띄는 농업대학 졸업생들의 소득변화 추이

○ 기간: 2005년 12월(소득분석시점)

- 대상: 40명(2004년 농업대학 원예과 졸업생 20명, 일반농업인 20명)
- 내용: 강화군 주력작목중 하나인 고구마와 고추의 소득분석

〈표 2〉 분석내용 예시

고구마 10a/연1기작 기준, 단위: 천 원

구 분	조수입	경영비	소득	소득율(%)
일반농업인	1,116	771	345	30.9
농업대학생	1,218	620	598	49.1

※ 변화사유→현지직판확대, 소포장 판매, 단골충성고객확보 및 지속관리

4.1.3. “농업대학을 이수한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지역여론 형성

졸업생이 600명, 재학생 160명 등 전체 인력이 760여명에 이르며, 주민들 사이에서 체계화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고 있어, 전직 군의회의장·군의원 현직 군의원 및 시의원, 전직교육장, 전직일반공무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읍면농협장, 이장 단장 등 지역인사들이 다수 지원하여 모범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4.1.4. 벤치마킹을 위한 타자치단체 공직자 문의 및 방문으로 운영사례전파

2007년 5월 3일 현재 강화군농업대학 운영상황에 대하여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한 자치단체 관계자 및 단체수가 42개소를 기록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및 농림부에서도 우수사례로 평가하여 매년(2005년 이후) 농업대학 졸업식에서 농림장관 표창을 정례화하기로 약속받았다.

4.1.5.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교육수요

우리 강화군은 2001년 이후 농업대학 및 대학원 지원자수가 모집정원의 2-3배를 항상 초과하여 신입생 선발시 필기시험을 실시하기에 이르는

등, 농업대학 및 대학원 교육에 참여하려는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은 지역변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4.2. 내면적 변화

4.2.1. 교육생들의 경영마인드 형성과 인식 전환

지금까지의 유형(하드)자산이 가치의 원천이란 종래의 사고체계에서 무형(지식)자산이 가치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의식 형성과 지식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시공간적인 제약을 초월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다양화 되었다는 사고 형성이, 위기시대 철저한 경영마인드로 무장, 제도약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도전해 보겠다는 자신감 회복으로 연결된 변화는 무엇보다도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4.2.2. 디지털시대를 함께하는 지식정보화 인력으로 거듭남

인터넷 기초반·중급반 수강, 홈페이지 제작반 등 지속적인 정보화교육 수강으로, 다양한 변화에 발맞추어 나감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농업경영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 및 다방면의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한 분야에 단절된 농업이 아닌 비농업분야의 동반자와 함께 일하는 연결된 산업으로 농업을 바라 볼 수 있게 시각을 형성하였다.

5. 앞으로의 과제

5.1. 인구 10만 시대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사회교육팀 설치운영

현재의 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향후 학과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부 지원체계(조직)를 갖추으로써 젊은층이 농업대학 및 대학원 교육을 통하여 우리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는 튼튼한 행정지원기반을 구축하였다.

5.2. 민간분야 최고 경영마인드를 가진 시설, 기관 방문 현장학습

지금까지의 농촌진흥청, 농림부 산하기관 등 농업관련 기관위주 시설 방문 및 농업인 운영 소규모 농장 관람위주의 현행 선진지 견학 시스템에서 완전 탈피하여 삼성경제연구소·서울가락시장·서울대학교 등 기관 및 시설방문 현장학습, 강의 수업으로 최고 수준의 경영마인드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5.3. 졸업생 대상 품목별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발전 인력풀 활용

농업대학 졸업으로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종사하고 있는 농업품목과 관심영역에 따라 품목별연구모임체를 결성,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장려하고, 또한 각종 교육시 이 졸업생들의 관심영역을 수강토록 하는 등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